

김용민브리핑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형이 쏠!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편측몰은	032-519-4800
네펜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텍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골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반기문 시나리오’의 기사감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성탄절을 앞두고 귀국한
 다. 그리고 박근혜를 만
 나 담판을 짓는다. 박근
 혜는 발표한다. 대통령직
 을 사퇴하겠다고. 이로써

6.29 선언으로 6월 항쟁의 성과를 무위도식한 노태우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듯 반기문은 19대 대통령 선
 거 국면에서 이니셔티브를 줬다.” 이런 시나리오가 번지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이미 포기한 보수정치세력이 다음 대선마저 포기
 할 것이라 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중성 있는 여권 후보로는 반기문 외에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는 점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
 는 시나리오입니다.

반기문 씨가 갈등과 반목의 현장에 찾아가 교착상태를 풀
 어낸 성과와 능력과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 10년 사상 최
 약의 유엔사무총장이라는 평가는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그림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꼼수라 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는 이미 번질 만큼
 번졌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수구 기득권 부패세력은 끊임없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동해 내년 대선, 우파정부 재창출을 위해 올인할 것입니
 다.

지금 새누리당을 위시한 보수 세력에게는 자성과 참회만
 요구될 뿐입니다. 지난 9년 역사와 민족, 국민과 국가공
 동체를 능멸한 자들이 무슨 염치로 집권을 꿈꿀 수 있겠습
 니까?

수도권 한 대학에 강연하러간 남경필 경기도지사, 비박인
 데다 최근 박근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며 탈당했지요?
 그러나 그 대학 학생들은 남경필 지사 면전에다 대고 ‘당
 신도 공범’이라는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가라앉은 새
 누리호에서 탈출하는 기회주의자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25일(금) 1부 | 경계경보! '반기문 6.29 코스프레 시나리오'

[오프닝] 반기문 '6.29 코스프레'...허튼 짓 거센 역풍 부른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 검찰, 영장에 “뇌물죄” 처음 명시...박근혜-기업 공범되나
- 김현웅 법무-최재경 민정 ‘사의’ 요지부동...완강한 수리 요구
- 세월호 발생일 수요일은 휴진이라더니...그날 왜 프로포폴을?
- 탄핵 찬성 국회의원 200명 넘었다...‘친박 돌격대’조차 동참
- “예수 윤운” 이정현 역대급 버티기에 당내 “이성 잃었다” 탄식
- [뉴스듣기능력평가] 1300조 가계부채...경제 컨트롤 타워 마비
-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 세계적 권위지 뉴욕타임스마저 ‘비아그라’ 스캔들 지면 보도
- 힐러리 200만표 앞서고도 낙선? ‘재검표’ 해볼만 하다
-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의 부역자들과 재벌 개혁
- 인류 역사상 최대의 집회, 민중은 모일 때 더 강해진다
- [공화국 논평] '청와대 단수' 추미애에 대한 강도높은 조치

박근혜 게이트, 뇌물죄 적용한다

국민일보 '뇌물죄' 로 박근혜 조이는 검찰

검찰이 최순실과 전 정책수석 안종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의혹과 관련해서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하더니 영장에는 뇌물을 죄명으로 적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범으로 지목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박근혜는 지난 2월과 3월 최태원 SK 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을 차례로 비공개 면담했다.

한겨레 피의자들 검찰 수사 초기에 말 맞춰

안종범의 보좌관이 검찰 진술 내용들을 미리 확보했던 것으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이 보좌관은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검찰 조사 대응방안이 담긴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퇴하기 전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말을 맞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 최순실, 압수수색 전날 증거인멸

최순실도 검찰이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 국내에 있는 측근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컴퓨터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심지어 망치로 부숴 증거를 없앴다. 그레놓고 최순실은 “난 모른다” 이라고 있다. 자기 머리도 망치로 때렸나 싶다.

죽은 권력 '박근혜'

한국일보 '차 뇌물죄' 수사, 김수남 주도

검찰이 대통령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를 수사하는 등 초강경 태세를 취하고 있다. 누가 주역일까? 한국일보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원석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수사 분위기를 살펴보려 해도 워낙 보안이 철저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이 작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지휘하지만 그 진정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향신문 김현웅·최재경 사퇴 의지 강경

대통령 박근혜는 어제까지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를 못하고 있다. 반려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왜 설득이 안 될까.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박근혜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강경 대응을 원치 않았는데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 즉 사태수습을 위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성형 게이트

東亞日報 그 의사, 참사 당일 프로포폴 사용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은 '매주 수요일은 정기 휴진'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수요일에 75여 차례나 프로포폴을 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일 프로포폴 1병을 사용한 기록이 공개되자 김영재 원장은 장모에게 간단한 시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東亞日報 “보톡스·필러는 어디서든 가능하다”

청와대는 어제 청와대 의무실은 성형 시술을 할 수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성형 전문의들에 따르면 보톡스, 필러, 리프팅 등의 성형 시술은 어디서든 시술이 가능하다. 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시술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내시'만 모르는 민심

한국일보 '친박 들격대' 마저 탄핵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당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4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2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친박 들격대' 로 불리는 의원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를까 신경림의 시와 함께 할 오늘을 읽는 책

경향신문 전국 아파트 번진 ‘퇴진’ 현수막

대통령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아파트 베란다에 내거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 400여개가 도시에 걸렸다. 인천지역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은 100여개에 이른다. 광주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현수막 걸기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제작했던 현수막 200개를 모두 판매하고 추가로 현수막 150개를 제작했다.

중영일보 박근혜를 예수에 빚댄 이정현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 달라, 예수 부인하는 베드로가 돼 달라는 거 아니냐.” 어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을 거부하며 쏟아낸 말들이다. 이정현 대표가 박근혜를 예수에 빚댄 것이다. 이정현 대표의 행태는 ‘역대급 버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오늘의 칼럼

한국일보

“이명박의 책임”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칼럼은 이충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의 “이명박의 책임”이라는 지평선 코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는 이명박 BBK 의혹과 박근혜 최태민 의혹 간의 접점이었다.

당시 이명박 편에 서서 박근혜와 최태민 일가의 관계를 처음 폭로한 김해호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돼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그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는 최태민과 최순실의 꼭두각시”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씨는 “최씨의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그는 “그때 박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최태민 파일을 접한 MB는 “박근혜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가장 잘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이 MB였던 셈이다. 하지만 MB는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박근혜 주변의 주문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았다. 임

기 초반부터 광우병 파동 등으로 자기 발등의 불을 끄기에 바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임기 후반으로 가면서 한나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박근혜에게 매달렸다. 그런 MB가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라고 탄식했다. 말은 옳지만 자신도 최순실 게이트 목인·방조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 유체이탈 화법 대신에 반성부터 했어야 했다.”

일상에서도 시민행동에 동참해주세요

- 집집마다 퇴진현수막 달기
- 가방과 옷에 퇴진 상징 배지, 버튼, 스티커 달기
- 차량 뒷유리, 상점 유리창에 퇴진 손코팅 부착
- 청와대, 경찰, 새누리당 등에 항의전화 및 글 올리기
- 생활 곳곳 인증샷 #박근혜퇴진 달고 SNS 올리기
- 퇴진행동 웹홍보를 SNS 공유
- 퇴진 서명운동 참여



집회/행사를 위해 후원해주세요
집회/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자원활동가로 참여해주세요
홍보매체를 통해 다양한 시민행동을 제안해주세요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bisang2016
후원계좌 농협 302-1066-1087-11 이승철

이명박만이 아니다. ‘야동’ 운운하며 판 세상 이야기인양 떠드는 친이명박계도 마찬가지다.